

지적재산추진계획 2007

2007년 5월 31일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07」의 책정에 즈음하여

1. 첫머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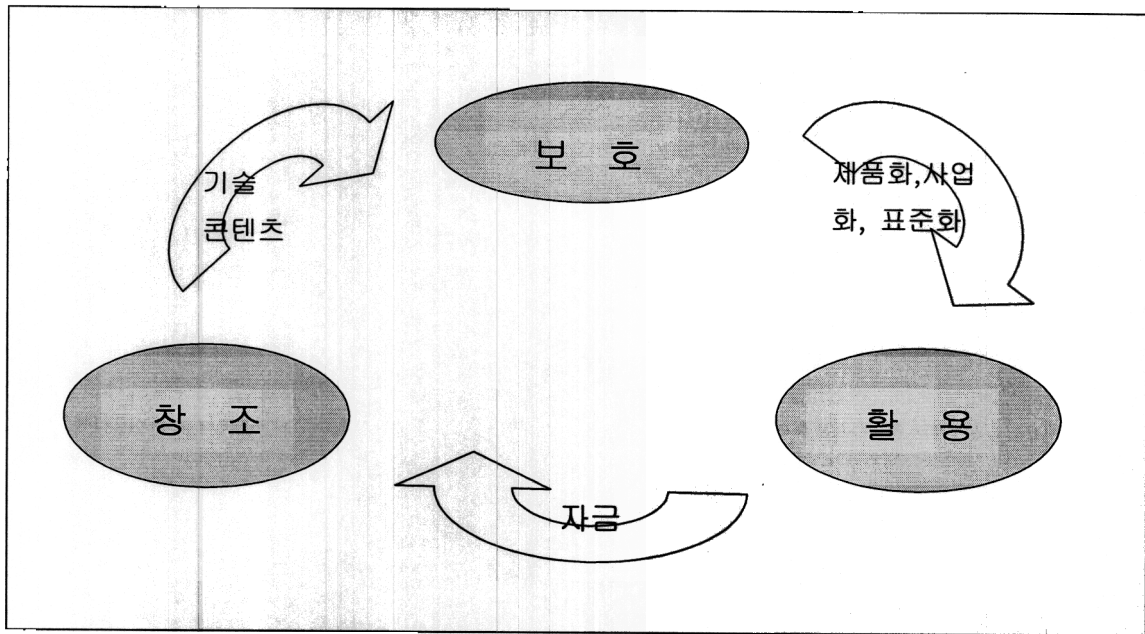
2003년, 지적재산 관련 국가전략인 「지적재산추진계획」이 처음으로 책정된 이후, 우리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은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일본이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목표로 삼게 된 배경에는, 최근 성장과 활력의 원천이 변화하고 있고,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음을 들수 있을 것이다.

제 1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연자원의 혜택도 없고, 제조업을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삼아온 우리 일본은 지금까지 근면성실한 인재와 왕성한 투자활동을 통하여,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는 제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 기술수준의 향상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추격하여 오고, 그 한편 우리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생산활동의 변화에 의하여, 이전과 같은 노동력과 자본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향후 다른국가들에게는 없는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 등과 같은 지혜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명확히 차별화되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제 2의 변화는 애니메이션, 만화, 먹거리문화 등 우리 일본이 자랑할 콘텐츠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과 더불어, 그 담당자들의 시야가 점차 넓어져가고 있음에 있다. 이들 콘텐츠는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일본의 이미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문화 진흥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구미, 한국, 중국 등의 국가들은 콘텐츠가 가지는 이러한 가치에 재빨리 착안하여 재정지원을 포함한 육성책을 전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IT 기술과 디지털화의 발전과 더불어 유저들이 스스로 창작활동을 넓혀가는 등 창작과 활용의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일본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는 속에, 우리 일본이 매력있는 「아름다운 나라」로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하여는 지(知)의 창조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지적재산으로서 적절히 보호하며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곳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새로운 지(知)의 창조활동으로 돌릴수 있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의 원활한 순환을 빠르게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이러한 「지적창조사이클」의 순환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지적재산입국'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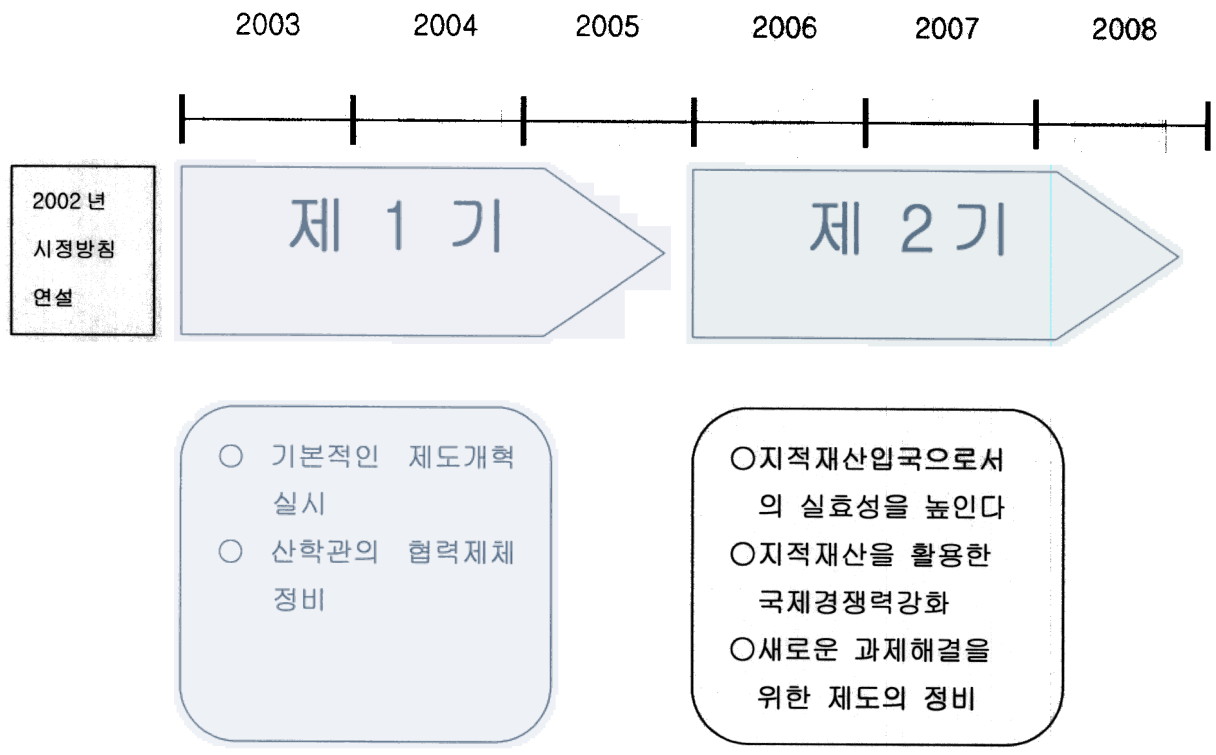


2. 지적재산전략의 발전

(.) 지금까지의 움직임

2002년 2월의 '시정방침연설' 이후, 「지적재산전략회의」의 설치, 「지적재산전략」의 개요 및 범위 책정, 「지적재산기본법」의 제정,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발족 등, 정부는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진행시켜왔다.

2003년부터 3년간은 「제 1기」로 칭하고, 제도 및 체제와 같은 주변환경을 정비함과 더불어, 2006년부터의 3년간은 「제 2기」로 설정, "세계최첨단의 지적재산입국을 지향"할 것을 목표로, 「제 1기」에서 진행된 개혁의 실질적인 효과를 올리며 새로운 과제에도 대응하여 나아가고자 한다.



(2) 성과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전략’을 책정 및 실시함에 따라 지금까지 다양한 성과를 올려왔다.

그 주요한 성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별책 「지적재산전략의 진보상황」을 참조할 것)

<p>【주요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설립 · 대학지적재산본부의 발족 · 모방품 및 해적판의 단속강화 · 특허심사의 신속화 및 효율화 추진본부 설치 · 콘텐츠진흥책의 추진 · 2006년말까지 30 항목의 지적재산관련법 성립

그러나, 개혁은 이제 시작한 시점에 불과하여, 세계특허시스템의 실현 및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콘텐츠창작과 유통의 촉진 등, 그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하는 과제도

많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관(民官)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난제들에 대처하며 미래를 개척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3) 제 2기 방침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06년 2월, '세계최첨단의 지적재산입국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7 항목을 「제 2기」의 중점항목으로 하는 「지적재산기본법의 시행상황 및 향후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 i) 국제적 전개
- ii) 지역사회의 전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 iii) 대학 등에서의 지적재산 창조와 산학연계 추진
- iv) 출원구조개혁 및 특허심사의 신속화
- v) 콘텐츠 진흥
- vi) 일본브랜드의 진흥
- vii) 지적재산관련 인재의 확보 및 육성

그리고, 다음의 5가지 시점에 입각하여 진행하여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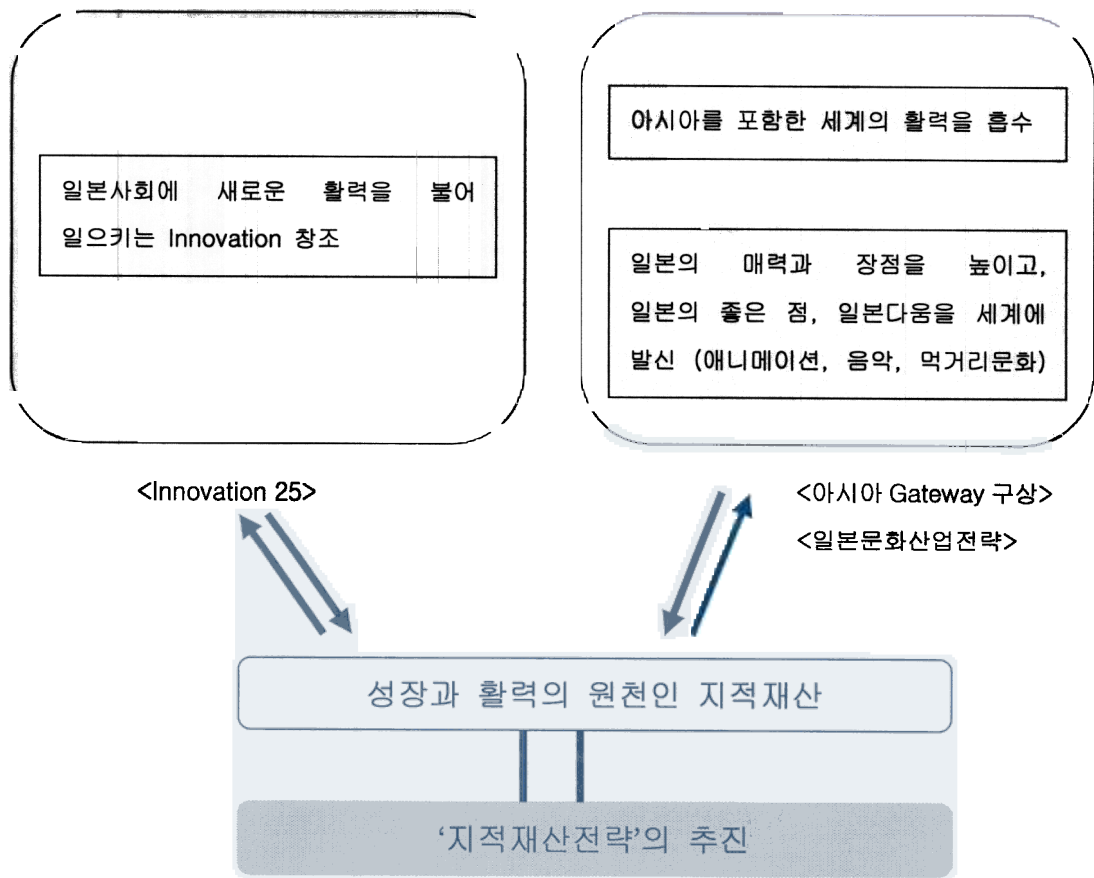
- i) 이노베이션을 촉진한다.
- ii) 지적재산문화를 국내지향에서 국제지향으로 전환한다.
- iii) 속도감 있는 개혁을 실시한다.
- iv) 지적재산권과 그 이외의 가치와의 밸런스에 유의한다.
- v) 종합적인 추진을 실시한다.

3. 「지적재산추진계획 2007」의 기본적 개념

(1) 책정

정부는 2007년 5월, 일본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킬 Innovation 창조를 위하여 전략 [Innovation 25] 및 일본의 매력을 세계로 발신하여 나아가기 위한 전략 ([일본문화산업전략])을 각각 정리하였다.

[Innovation 25] 및 [일본문화산업전략]은 글로벌한 경쟁시대 속에서 기술뿐만이 아닌 애니메이션, 음악, 먹거리문화 등을 바탕으로 한 일본성장예의 공헌과 일본의 좋은 점, 일본다움의 세계발신을 꾀하는 것으로서, 바야흐로 지적재산에 성장과 활력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할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지적재산추진계획 2007]은, 「제 2 기」의 중점항목 중 하나인 '국제적인 전개'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의식하고, 우리 일본이 세계의 최첨단 지적재산입국이 되기 위한 시책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개혁이 실현시킨 지적재산에 관련된 제도와 체제를 적합하게 운용함과 더불어, 새로운 과제에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더욱이, 본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2007년 2월에는 [지적창조사이클전문조사회(회장:아베 히로유키)]로 부터, 2007년 3월에는 콘텐츠전문조사회(회장:우시오 지로우)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국민 및 유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2) 실시

지적재산추진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시책의 실시에 관련하여서는 담당정부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지적재산추진계획'에는 구체적 시책별로 담당정부부처가 명시되어져 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담당정부부처의 대처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시책에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를 촉구한다. 또한, 관련 담당정부부처가 다수인 경우로 인하여 시책의 실시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종합적인 조정을 실시한다. 즉, 지적재산추진계획에 있어서 구체적 시책의 담당정부부처로서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시책의 실시에 관여하게 된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종합과학기술회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 관광입국추진전략회의, Innovation 25 전략회의, 아시아 Gateway 전략회의,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기획회의 등 여타정책회의 및 전략본부와 연동, 연계하여 나아간다.

‘지적재산입국’은 국민전체가 의식을 폭넓게 공유하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전략본부」는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각지로 지적재산에 관련된 설명회 및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여 나아간다.